

라. 계열적합전형(의과대학 적·인성) 문항 분석 결과

[고려대학교 문항정보]

1. 일반 정보

문항붙임번호	9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 선다형고사	
전형명	수시모집 계열적합전형(의과대학 인·적성면접 I)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의과대학 / 1~4번	
출제 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생명과학 I, 생활과 윤리, 국어
	핵심개념 및 용어	신경계, 직업윤리, 의사결정, 공감
예상 소요 시간	면접시간 8분	

2. 문항 및 제시문

50세 여자가 악성 뇌종양 진단을 받고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인 및 보호자의 동의 하에 수술을 받고 있다.

의료진이 수술 중 확인한 뇌종양은 수술 전 뇌영상 검사의 종양 크기보다 더 컸다. 실제 확인된 종양의 모든 부위를 광범위하게 절제하는 경우, 3년 이상 생존이 예상되나 환자의 원팔 마비가 예상된다. 반면 광범위하게 절제하지 않는 경우, 원팔 마비는 없겠지만 1년 이내 사망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에 따라 수술 중 의사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 어느 부위의 절제 때문에 원팔의 마비가 유발된다고 생각하나요?
- 현재 상황을 요약하고 수술적 절제 범위 결정을 위해 환자에 대하여 의사가 추가적으로 파악해야 할 정보는 무엇일까요?
- 환자의 수술과 관련하여 다른 의견을 가진 의사가 2명 있습니다. A의사는 자신의 경험 상 전체 종양 영역의 광범위한 절제가 종양 재발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고 합니다. 반면, B의사는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종양이 있는 뇌조직을 일부 절제하고 새로운 치료를 병행하자고 말합니다. 학생이 의사라면 어떤 결정을 할 것인지 그 근거와 함께 설명해 보세요.
- 환자는 광범위한 뇌절제 수술 후 심한 원팔의 마비가 발생하였고 6개월 뒤 사망하였습니다. 주치의는 이후 유사한 진료와 수술 과정에서 최대한 보수적으로 접근하게 되었고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힘들어하는 상황입니다.
학생이 주치의의 동료라면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가요?